

10

2022년 10월 8일(제316호)



옥천소식

9월 옥천군 인구 49,650명(남 25,046명 / 여 24,604명)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발행인 옥천군수 편집 편집위원회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T. 043)730-3065 홈페이지 www.oc.go.kr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힘찬 출항을 알린 민선 8기 황규철호가 100일을 맞았다. 민선 8기가 그릴 옥천의 미래 청사진과 군민과 함께하게 될 4년간의 여정이 기대된다.

고향소식을 선물하세요!

옥천소식은 무료로 배부하는 군정소식지입니다. 주민은 물론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이나 외지인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역근무자나 출향인에게는 고향 소식을 전하는, 외지인에게는 고향을 자랑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옥천소식을 선물하세요 신청문의 : 옥천군 홍보팀(043-730-3065)

02 기획

황규철 군수 취임 100일 일문일답

08 기획

옥천구읍 3년만에 詩골복적... 제35회 지용제 성료

04 기획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10 종합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 확보

“행복한 꿈이 가득한 옥천을 열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옥천군수에 취임한 황규철 군수가 10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의 발자취와 궁금한 점, 향후 나아갈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01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12년간 충북도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 반대 입장인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5만여 옥천군민의 행복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지면 변화를 이끌 수 없고, 소통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실천하는 일 잘하는 군수가 되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02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민선 8기 군정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으로 옥천군민은 물론 옥천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꿈’을 드리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군민만을 위한 군정을 펼쳐 ‘군민 행복시대’를, ‘행복한 꿈이 가득한 옥천’을 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배꼽마을이 있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옥천만이 간직한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을 군정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옥천’, ‘활기찬 지역 경제 구현’,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03 ‘교육복지천국’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근 도시로 진출하는 사람들, 직장이 옥천임에도 대전,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매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6%, 내년도 기준 약 22억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회도 120억원 이상 적립돼 있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와 장학회 등을 적절히 활용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평생학습과 이동친화 도시를 아우르는 ‘교육복지천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터를 신설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행복교육택시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충북도립대학교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옥천군 전체가 대학캠퍼스가 되어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마을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04 올해 인구 5만이 붕괴된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옥천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될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옥천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취임 7일째인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대청호 생태관광지 연계 프로젝트와 소규모 MICE산업 육성, 체류형 묘목창업농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 심의에서 B등급에 선정돼 1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광역지원계정으로 지원되는 43억원을 포함 2년간 총 211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인프라 구축, 지역의 자원과 투자사업 육성, 산업경제 구조개선 등 지역 체질 개선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5 취임 후 축제, 도민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제61회 충청도민체육대회', '제35회 지용제'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행사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민·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세 번의 축제 모두 2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었습니다.

포도·복숭아 축제는 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고 포도, 복숭아, 농산가공품 등 총 4억 7000만원의 실적을 거둬 옥천에서 재배된 고품질 포도와 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홍보하며 방문객과 농가 모두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옥천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체전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순연돼 3년 만에 열린 제61회 충청도민체전은 옥천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 160만 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빛내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경제발전, 문화대전으로 열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했습니다.

2017년 유망축제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충북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며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발돋움한 지용제는 올해 5만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 다양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에 재미와 감동을 받으며, 추억거리를 한아름 안고 갔습니다.

06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도와줘OK'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음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며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주민은 누구나 문자(☎010-3469-8572), 카카오톡을 통해 군정 정책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군수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신문고 '도와줘O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185건의 민원을 접수해 179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6건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와줘OK'는 단순 문의의 경우 몇 분 안에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 및 중앙분리대 파손, 맨홀 막힘 등과 같은 생활 위험 요소는 당일이나 늦어도 3일 안에 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공감하는 제안 사항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정비된 옥천 구읍 교동저수지 둘레길 일부 구간이 어둡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습니다. 이 길은 구읍 마을주민의 아침, 저녁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옥천군은 지난 달 말 이곳에 자동 점멸식 조명을 설치해 해가 짧아지는 요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주민 편의를 돕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진두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즉시 처리해 나가고, 정책·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7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여 년의 행정경험과 다양한 사회단체활동, 12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그동안 옥천의 행복과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제 그 구상을 정책화해 5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와 함께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취임 후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 있을 것입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행복드림옥천'이 그리는 미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을 슬로건으로 오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선8기의 8대 분야 주요 공약사업을 한눈에 살펴보고 새로운 옥천군의 모습을 그려본다.

01

**6만 자족도시 옥천!
그 시작은 교육**
(5개사업, 278억원)

-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평생학습, 군립학원, 여성회관의 복합화 시설, 행복드림교육의 상징 / 180억원
- 행복드림교육 재정지원 확대**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 73억원
- 행복옥천교육포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옥천군 전영역의 교육과정 정보 제공 / 3억5천
-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습동아리, 청소년비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6억5천
-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활동 거점 공간 조성 / 15억원

02

**성년이 되는 그날까지
옥천이 OK!**
(5개사업, 50.4억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출생아당 1백만원 / 400명 / 4억원
-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아종일제 돌봄 월52만원 추가 지원 / 2억원
- 청소년 꿈 키움 바꾸쳐 지원 확대**
· 13세~15세 연14만원 / 16~19세 연20만원 / 16.4억원
· 교육,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 청년수당 지원**
만24세 / 1인당 1백만원 / 16억원
- 충북도립대 주소 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주소 이전 학생 1,200명 / 1인당 1백만원 / 12억원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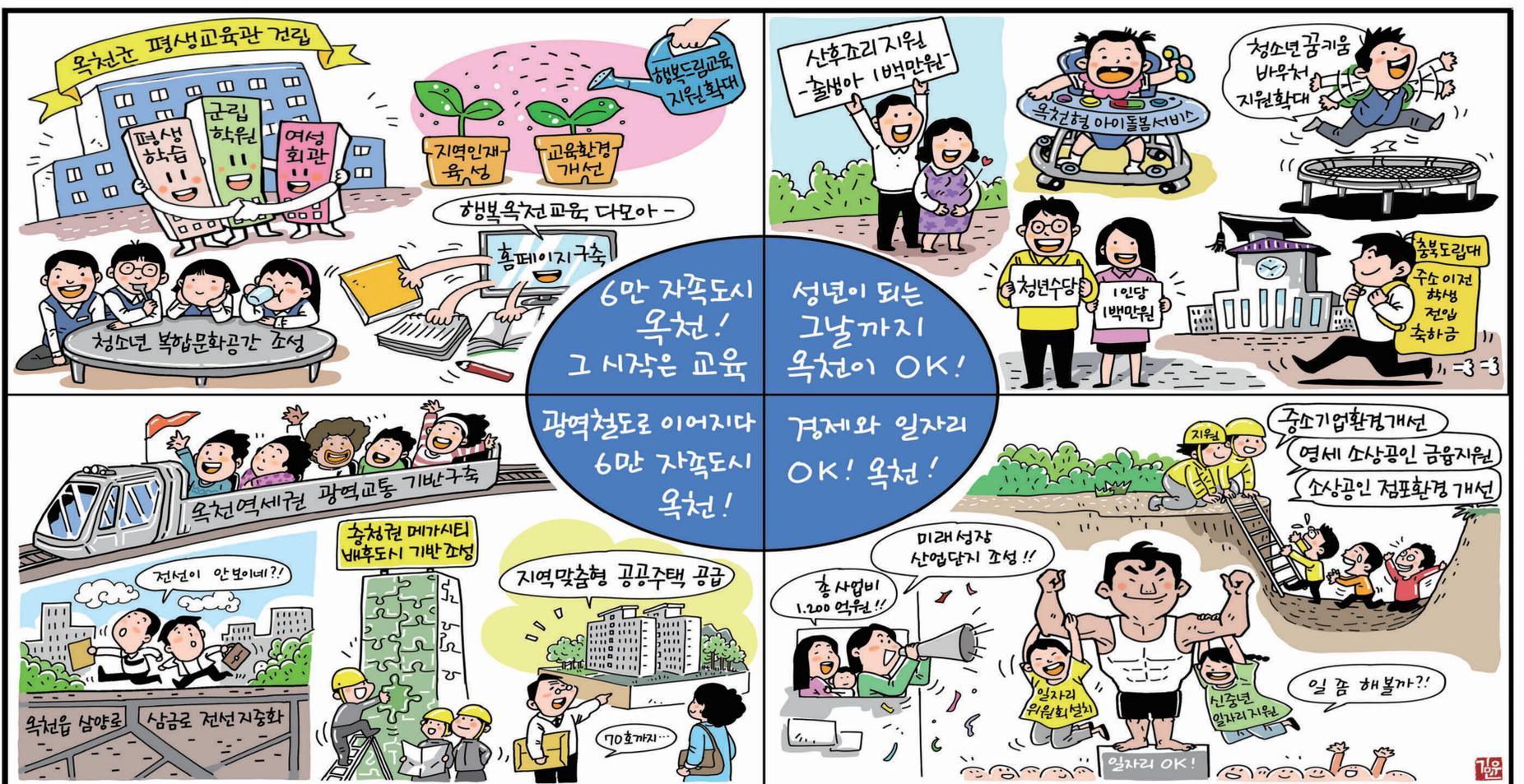
**광역철도로 이어지다.
6만 자족도시 옥천!**
(4개사업 469억원)

- 옥천역세권 광역교통 기반구축**
· 광역철도 대응전략, 역세권 개발방향, 충청권 메가시티 역할 정립, 환승체계정비, 도시교통체계 개선
· 1일 편도46회 / 편도 15분 / 3억원
- 옥천읍 삼양로·삼금로 전선지중화**
삼양로, 삼금로 전선지중화(1.7km) / 105억원
- 충청권 메가시티 배후도시 기반 조성**
· 군북면 전원단지 진입도로 개선 / 17억원
· 도로시설 확충 4개소 / 28억원
·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350면 / 142억원
-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70호 / 174억원

04

**경제와 일자리
OK! 옥천!**
(5개사업, 1,325억원)

-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682,792m²(약20만평) / 80개 기업체 / 총사업비 1,200억원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확대**
매년 20개소 / 근무환경개선, 안전예방 시설 지원 / 24억원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점포개선 지원 확대 / 생활필수업종 지원
재산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36억원
- 신증년 일자리 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겸비한 증년 220명 / 65억원
-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정책의 컨트롤 타워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드림옥천 건설

사진으로 보는 민선 8기 이야기

민선 8기 출범 이후 100일의 시간이 지났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온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돌아본다.



6.10 민선 8기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7.1 주민이 주인이 되는 각계각층의 참여로 소통과 화합 분위기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제38대 황규철 옥천군수는 취임사 및 비전을 밝히며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7.2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이원청년회 회원과 CJ대한통운 직원 20여 명과 함께 취약 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7.25 군서면, 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면 지역 초도방문을 통한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사회단체장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행정을 펼쳤다.



7.27 옥천 복숭아와 샤인머스켓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황규철 옥천군수가 청주농협 하나로마트 판촉 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했다.



8.11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9가구를 위문했다.





8.24 옥천군 청산면 동학유적지에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를 채화하며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8.31 안전점검 이행 철저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동이면 석탄리부터 군북면 막지리까지 대청호 도선 운항 사업장 등 현안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9.5 옥천소방서, 옥천경찰서,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군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장보기에 직접 참여해 추석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9.7 옥천군 노인회 회의실에서 옥천군 노인대학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현황과 복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군의 교육복지·주민 복지에 대한 내용과 옥천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옥자10 시리즈 관광 안내까지 '행복드림 옥천'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9.13 정부의 내년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현안 사업 국도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도지사와 취임 후 첫 면담을 하고, 군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9.21 아동이 직접 아동 관련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제2회 아동정책 창안한마당'을 개최해 아동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9.26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옥천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건축, 소방, 전기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세밀히 살피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다.



10.6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행복드림옥천' 실현을 위한 군수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민선 8기 옥천군수 공약사업 군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제35회 지용제

옥천구읍이 3년 만에 詩끝복적... 시문학 향수에 흠뻑 취해요

한국 현대시의 시성(詩聖) 정지용 시인을 기리고 그의 삶의 향기와 문학세계를 더욱 가까이 느끼며 음미하는 옥천의 문학축제 '제35회 지용제'가 3년 만에 대면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3년 만에 대면축제 개최... 관광객 5만 7000여명 다녀가

올해 지용제는 '詩끝복적 문학축제'를 주제로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 까지 정지용 생가 및 구읍 일원에서 4일간 열렸다. 나홀간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5만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옥천군은 축제 기간에 맞춰 구읍 일원 곳곳을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경관으로 새 단장을 했다. 실개천 주변에는 구읍 주민들이 직접 키운 국화로 '주민키움정지용국화거리'를 조성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실개천에 달린 시(詩)등과 구읍 거리에 걸린 청사초롱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구읍 골목골목을 환히 밝혔다.

이와 함께 지용문학공원 앞 고향방송국의 보이는 라디오 부스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DJ와 리포터가 돼 방문객 인터뷰와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

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푸드트럭 먹거리와 함께 방송국 앞 파라솔에서 음악과 시연을 듣는 여유로움으로 축제의 낭만을 더했다. 방송국 옆로는 빛 터널이 설치돼 옥천문인협회의 시회등과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작들이 전시되고 공원에는 하트벤치, LED토끼 등 포토존이 설치되며 뷰(View)-맛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짹짹동요제·시노래콘서트 등 오감만족 즐길거리 다채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첫날인 22일에는 ‘꿈엔들 고향’을 주제로 ‘제20회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인문학 캠페인, 지용제 개막식과 전시회, 북한예술단 초청공연 등이 진행됐다.

23일에는 ‘산골이 고향을 테마로 제32회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제14회 옥천 전국 짹짹동요제, 제18회 군민한마음노래자랑 및 향수 콘서트가 열렸다. 특히, 전국 짹짹동요제에서는 13개 팀이 각축을 벌였고, 결승에 올랐던 ‘소리나래빛중창단’과 ‘바다별중창단’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소감을 말할 때 관객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풍경을 자아냈다. 대상의 영예는 ‘바다한상’을 부른 ‘소리나래빛중창단’에게 돌아갔다.

24일에는 ‘실개천 고향’을 앞세워 제13회 옥천군향토음식경연대회가 열려 지역의 10개 식당이 다양한 요리로 기량을 뽐냈다. ‘오천년코다리 식당’이 ‘코다리조림&황태양념무침’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시상 후에 이어진 시식 시간에는 대기 줄로 장사진을 이루며 옥천의 먹거리를 알렸다. 이어 ‘제5회 정지용 동북아 국제문학포럼’, 2022 한국시인대회, 전국정지용청소년문학캠프 등이 진행됐고, 본행사인 제34회 정지용문학상 시상식 및 시인과 함께하는 시노래콘서트가 구읍 상계체육공원 본무대에서 열렸다. 최동호 시인의 3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과 함께 시 낭송을 비롯한 가수 김재희, 서문탁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토요일 저녁 축제의 분위기를 달궜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1회 전국정지용백일장, 제9회 정지용 전국 시낭송대회, 지용음악회, 제21회 전국정지용백일장 시상식 등이 이어졌고, 정지용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한마당을 끝으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e지용제시화페스티벌 등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인기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 근처에서는 장승깎기, 페이스페인팅, 솟대 만들기, 희망 담은 종이배 띄우기, 고향전시관, 지용구름투어, 시골복적 생가체험 등 다양한 상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 밖에도 3년 만에 재개된 인력거 체험도 구읍 골목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축제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고향에 On’ 프로그램을 통해 e지용제, 시화페스티벌, 3행시 작성 등 시문학을 흥미하고 느낄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었다.

황규철 군수는 “7월 향수포도복숭아 축제, 8월 도민체전에 이어 9월 지용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시 5월에 찾아올 제36회 지용제도 열심히 준비해 군민들에게 행복을, 옥천을 찾은 관광객에게 추억을 드리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우리의 언어를 시적 형상화한 시인이자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 정지용을 추모하고, 그의 시문학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의 문화축제다. 앞서, 지용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2022년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고,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뽑히며 대한민국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주민 소통 창구 '도와줘OK' 민원해결 효과 만점 간편한 민원 제보 방식 · 신속한 처리 회신 등 큰 호응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황규철 옥천군수의 특별한 주민 소통 창구 '도와줘OK'가 한 달 만에 185건의 민원을 접수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도와줘OK'는 군수 직통 휴대전화(010-3469-8572)로 문자메시지 또는 온라인 공간 카카오톡 채널 '도와줘OK'를 통해 생활 속 불편 사항, 건의 사항 등 군정에 관한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개인 정보 제공 없이 누구나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다.

처리 답변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단순 문의는 몇 분 안에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고, 도로 및 중앙분리대 파손, 맨홀 막힘 등과 같은 생활 위험 요소는 당일이나 늦어도 3일 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군은 9월 한 달간 179건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고, 6건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공감하는 제안 사항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정비된 옥천 구읍 교동저수지 둘레길 일부 구간이 어둡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이 길은 구읍 마을 주민의 아침, 저녁 산책로로 많이 이용된다. 군은 지난달 말 이곳에 자동 점멸식 조명을 설치해 해가 짧아지는 요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주민 편의를 도왔다.

단, 주민불편 신문고 '도와줘OK'가 만사 해결책은 아니다.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는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농로 포장, 수로 정비, 가로등 우선 설치 등은 마을 내부 협의와 절차,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도와줘OK' 이용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제기한 민원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 진행된다. 민원 내용과 처리 경과는 비서실을 통해 매일 군수가 직접 확인한다.

주민불편 신문고

생활 속 불편사항은 도와줘 OK!

직통문자번호 010-3469-8572(바로처리)

* 카카오톡 채널, 문자 메시지만 가능하며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속 불편사항, 건의사항, 군정에 관한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궁금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카카오톡 채널 등록

2 '도와줘OK' 검색

3 카카오톡 채널 등록

4 채팅 시작

5 채팅방 입장

6 문의 및 답변

옥천군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 **서류접수:** 2022. 10. 4.(화)~10. 28.(금)

■ **지원 대상자**

- (만)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교육적 선도 대상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 기준 및 지원 서비스**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월 65만원, 건강지원-연 200만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월 15~36만원)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 **문의전화:** 평생학습원 청소년팀 730-3770

행정심판 비용 지원 제도 알림

■ **지원대상:**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전부인용재결을 받은 당사자(2021.7.14.이후)

■ **지원기준**

행정심판 수행 방법	지원액
본인 직접 수행	30만원
행정사 등 조력 받아 수행 (실 지급한비용 범위 내 지급)	상한 50만원
변호사 선임하여 수행 (실 지급한비용 범위 내 지급)	하한 80만원~ 상한 310만원

■ **신청기한:** 재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안내 통지

■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팀(☎730-3083)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가 안심, 환경도 안심
반가워요, 소비기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시설·물품을 국민과 함께 쓰는 「공유누리」 서비스

즐거운 여가생활, 공유누리와 함께해요

공유누리
www.eshare.go.kr

주차장 · 회의실 · 체육시설 · 캠핑장 · 생활공구 등을
「공유누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원 확보

행안부 투자계획 평가 B등급... 인프라 구축 등 활용

옥천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 지역 18개 지자체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2022~2023년 2년간 지원액을 평가·배분하는데, 기초지원계정은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5%(4개 지자체, 210억원), B등급 15%(13개 지자체, 168억원), C등급 45%(39개 지자체, 140억원), D등급 20%(18개 지자체, 126억원), E등급 15%(15개 지자체, 112억원)로 차등 배분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 주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지방소멸대응 민·관 협력단을 출범하고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5월 말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7월 7일 황규

철 군수가 서울에서 열린 평가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군은 8월 12일 행정안전부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 심의에서 B등급에 선정돼 1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광역지원계정으로 지원되는 43억원을 포함 2년간 총 211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은 대청호 생태관광지 연계프로젝트 등 9개 투자사업, 280억원 규모로 신청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시급성, 타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168억원 규모의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지원계정 43억원으로는 청년이음터 조성(10억원), 옥천공동체허브 육성사업(10억원),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조성(23억원)을 추진한다.

군은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프라 구축, 지역의 자원과 투자사업 숙성, 산업경제 구조개

선 등 지역 체질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미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옥천군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옥천의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사업의 발굴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옥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역대 최대 규모 6858억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16.26%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집중

옥천군은 9월 6일 역대 최대 규모인 6858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정예산 5899억원 대비 959억원(16.26%)이 증가한 규모다.

군은 이번 추경에서 2021년 예산 정산분 및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지역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

먼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향수OK카드 할인보전비용을 종전 62억원에서 29억 9000만원이 증가한 91억 9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간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4억원을 지원하며, 농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지역 농업을 위해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보조금 예산 1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입원 치료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억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에 1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옥천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서 134개 사업에 4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원, 지방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장애인복지관 신축, 옥천만다미체육센터 건립,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들을 마

무리하기 위해 6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천제방 정비사업 등에 4억9천만원, 겨울철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제설장비 설치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시가지 도로에 예기치 않은 경미한 파손 발생 시 긴급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 9억원을 반영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황규철 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외부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만큼 추경안 편성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며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옥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허용 등 호평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7개 자치단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군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민·관·단체 협업 추진으로 33년 만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이 허용돼 특별대책지역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성

과를 냈으며,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재)옥천군장학회 후원회원 모집안내

· 후원회원 모집안내

옥천군 교육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면 누구든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옥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 정성어린 장학기금은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이뤄줍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한 구좌가 필요합니다.

· (재)옥천군장학회 후원금 입금계좌

NH농협은행	328-01-013881	우체국	300111-01-006625
옥천농협	405010-51-127461	KB국민은행	405301-04-140731
옥천신협	131-002-581591	산림조합	303-11-0009069
옥천영동축산농협	173128-51-020681	옥천새마을금고	4614-09-006318-9
한성저축은행	408-01-13-245-1185	이원새마을금고	9002-1698-9780-4
IBK기업은행	570-001802-01-012	각 계좌 예금주 : (재)옥천군장학회	

(재)옥천군장학회 장학금 기부내역



정기기탁				일시기탁		
강호연	농업회사법인(주) 금호식품	육혜수	조경현	태윤호	김수연	경민농원 대표 염진세
곽경훈	도연주	윤양규	차은희	조지형	양순옥	(주)하나로OA퍼니처 회장 송일영
이영환	문화광고마을	음미경	채희성	김용환	현순예	풍미당 대표 육진태, 김옥분
농협은행 옥천군지부(13명)	민경천	이규순	천세현(동아서적)	임경목	주옥희	OK스마일 여성꽃살팀
길통중의학과	박노경	이근수	천영희	전은주	조병찬	옥천읍남성 의용소방대
김광철	방수혁	이상수	최희열	임경준	이은아	옥천전씨안남파종중 대표 전상건
김규숙	배광호	이상우	해운물류(주)	박종완	조규철	향수신협 상무 정진영
김성중	백미희	이진영 (명륜당)	황상철	(SK텔레콤)	이호걸	옥천군 새마을회
김윤주	손기찬	이필국	(주)산수코리아	김재관	조계종 승림사	
김정민	손성일	임인순	김동국	유재구	김홍권	
김정순	송광영	임홍순	최광천	(학우문구센터)	정만영	
김진숙	유병천	정대회	전한기	(주)대산철강	천강선	
김희연	육종민	정재복	조광휘	김중운	김재영	
			한길순	(광신수출포장)		

“함께하면 행복 두 배” 옥천군 행복나눔 연합모금

“옥천군 행복나눔”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옥천 만들기를 위해 옥천군,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한 모금사업입니다.

- **옥천군 전용후원계좌** 농협 301-0206-1076-71, 예금주 충북공동모금회(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처** 지원대상자의 사유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거비 등
- **참여문의**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43) 732-0120, 732-0141 F. 043-733-0120

· 옥천군행복나눔 기부내역

2017.4.17.~2022.9.30. / 569,605,959원

- 2017년 23,303,020원 / 2018년 61,790,610원 / 2019년 92,190,850원
- 2020년 158,736,550원(코로나19 성금 중 69,830,520원 포함) / 2021년(170,681,899원) / 2022년(62,903,030원)

CMS후원	정액을 매월 후원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	착한일터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을 자동으로 이체
착한가게(기업)	중소규모의 자영업 종사자가 매출액의 일정액 후원	일시후원	매월 정기 기부가 부담스럽거나 바자회 등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한 기부
착한가정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정기기부

강나영	김숙자	김해동	박점분	신선혜	이선미	전형조	최서연	개나리어린이집	세종농원	친환경유리소영농조합	박은용	이원면기관단체장
강병갑	김순정	김해명	박정미	신일섭	이선우A	정구훈	최승희	건설공사	성진하우징	팔팔종합철물	서강진	이원면기업인협의회
강성진	김신애	김해빈	박준무	안은영	이선우B	정규영	최연호	경민농원	세화건설(주)	타이어드림	송영달	이원면여성자율방범대
강유진	김승열	김현숙	박종원	양보나	이성기	정길중	최윤미	경성만두요리전문점	수성건설(주)	태경콘크리트(주)	신부철	이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정옥	김연수	김형태	박종인	양현화	이성학	정순점	최은희	구미농원	수제·돈까스	수제·돈까스	신현제	이원새마을금고
계성희	김영운	김혜림	박지영	여영우	이 술	정영분	최진태	군서면 귀농회	스마트홈(옥천점)	스마트홈(옥천점)	유성진	이원신용협동조합
고숙경	김연준	김효중	박진성	염영훈	이수진	정영호	최하영	군서면민협의회	신수농원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	염영택	이원청년회
고영희	김연철	김희라	박찬정	오수환	이순구	정우영	하경숙	군서면자율방범대	신흥산업가스(주)	노동조합	장원대	주식회사 송암
공영환	김영우	김희연	박창진	오준아	이숙경	정은성	한미숙	금빛노인재가센터	아방데코	한밭잔치방	경민농원	향수회
곽길순	김옥현	김희일	박현숙	우명수	이성만	정인재	한영수A	길연식당	양수리 주연식당	한여농군서면협의회	국민건설	현대조경농원
곽상혁	김완기	노은수	박형용	우윤순	이시창	정자현	한영수B	남경제과	영농조합법인 대성	향수목농원	군산초등학교 총동문회	충청농원
곽인상	김완일	노재호	박홍래	유경순	이은미	정종은	한진경	영농조합법인 대성	영농조합법인 대성	향수어린이집	농업회사법인 대림묘목농원(주)	(주)동원레미콘
권명길	김용환	노지숙	박희용	유길임	이은영	정지영	허만호	남원원예종묘	에스에이치건설산업(주)카페	형근설비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한울	
권미란	김윤주	도경애	반경구	유성현	이영주	정해영	허정숙	농업회사법인(주)광일농원	엘도라도(구영회)	CU옥천이원점	나라중기(금기국)	
권미정	김은숙	류충열	배경호	유수진	이장무	제경태	홍종선	농촌지도자협의회	옥고을칼국수	JS푸드	나라중기(이상돈)	
길현주	김은옥	맹수현	배영순	유영완	이정미	조근호	황규남	달카페	옥천동물병원	(주)교동식품	대약사사(평안스님)	
김경범	김정민	박갑수	배준호	유인태	이재현	조도순	황규철	대도식품	옥천문화원	(주)기업물류유통터미널(김상배)	대신이앤씨 주식회사	
김경화	김정순	박강성	서명아	유정미	이주찬	조소형	황승일	대산애교산업(주)	옥천사무기	(주)명가식품	대신제일가스설비	
김금자	김재관	박기동	서은주	윤소순	이천세	조수형		도담농원	옥천지엘어린이집	(주)법양정밀	동우테크	
김기성	김재숙	박노경	서진석	윤인경	임락재	조서빈		돌림산우렁쌈밥	요고밸리	(주)삼성전자옥천점	메타클래프트코리아(주)	
김대훈	김재중	박노영	설주경	음미경	임갑순	조영복		뜨끈뜨끈해장국·감자탕	우리꽃방	(주)승진금속	문화광고마을	
김동연	김정옥	박미래	성낙중	이국무	임경자	조주옥		문화광고마을	의료법인힐링의료재단옥천성모병원	(주)우경	바다하늘구움과자점	
김동엽	김종문	박민서	성락중	이규완	장경식	조현분		미래기전	이원만두	(주)이원전기공사	배바우 정보화마을	
김락중	김종범	박민숙	성민영	이기운	장영준	조희숙		미림농원	장아어린이집	(주)일신	서원건설(주)	
김미연	김종훈	박병훈	소진숙	이대석	장은관	조희정		바다하늘구움과자점	정보철강(주)	(주)코앤즈	새강변가든	
김미정	김중수	박송희	손다현	이동하	장혜란	지충환		바르게살기운동군서면위원회	주식회사 승진	(주)창조	새한유리산업	
김병웅	김종열	박수진	손민정	이만수	전길호	진석원		방아실돼지집	청목장갑		세화건설(주)	
김상열	김종호	박영진	송광영	이명숙	전우찬	차덕환		법무상황성권	청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성건설(주)	
김서희	김주희	박용운	송호웅	이문순	전인호	차해훈		부모사랑요양센터	청성농장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김선분	김태수	박유리	신동수	이문식	전재상	천강선		신내들도매유통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		옥천버섯קי연합회	
김선자	김훈홍	박윤철	신동식	이미현	전주일	천송희		새한유리산업	충북지체장애인협회옥천군지회		아이앤지산업(주)	
김성근	김한백	박은용	신상수	이봉혜	전향우	최문호		서원건설(주)	충청농원		이원농업협동조합	

지원 내용

- **개인(현금) 지원**
→ 241가구 / 79,200,000원
- **개인(현물) 지원**
→ 123가구 / 7,810,000원
- **읍면협의회 지원**
→ 9개소 / 84,161,000원
- **환절기 난방용품지원**
난방유 34가구, 온열제품등 7가구
→ 41가구 / 10,000,000원



코로나19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시행

목천군은 9월 5일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접종(1, 2차)에 활용되며, 4주(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특히, 다양한 백신 제조(인플루엔자, B형간염)에 활용되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천군보건소(월, 화, 목)와 정소아청소년과의원(월, 금, 토)에서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ncvr.kdca.go.kr)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우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아리 요리교실 운영

목천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18개소, 390여 명을 대상으로 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병아리 요리교실을 10월 중 26회 운영한다. 이번 요리교실에서는 유아들이 꺼리는 음식 재료를 이용해 개구리 모양의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음식 재료를 접함과 동시에 채소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영양소에 대한 지식과 직접 만듦으로써 유아들의 편식 교정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

목천군보건소는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임신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만 978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39%가 국가 무료접종 혜택을 받게 된다.

백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며, 무료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21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생후 6개월~만 9세)부터 접종이 시작됐으며 10월 5일부터 독감 1회 접종 대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가 접종 가능하다.

어린이 지정 의료기관은 총 10개소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조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외의 대상자는 사업 초기 혼잡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만 70세~74세 어르신은 17일, 만 65세~69세 어르신은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군 보건소(043-730-2164)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건칼럼

당뇨병과 손, 발 저리는 증상

손, 발 저림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신경계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원인을 일으키는 부위에 따라 말초신경질환과 척추질환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

말초신경이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조직으로 몸 곳곳에서 손, 발끝까지 퍼져있는 신경입니다. 이러한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소위 '저리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손목굴증후군이나 당뇨를 오래 앓아 발생하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은 신경 손상이

일어나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말초신경에 발생하며 일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디스크란 '추간관 탈출증'이라고도 하며 척추나 경추 사이에 있는 추간관이 빠져나와 신경뿌리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면 손저림을 유발하게 되고,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 통증과 더불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저린 감각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 발 저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

로 우선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한 저림의 경우 8주간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도 침 치료와 전기 침 치료로 증상을 개선한 여러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은 혈당이 높게 유지되어 신경이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혈당을 정상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우선은 당뇨 치료 및 관리와 더불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염식이 및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목천군보건소 공중보건의

박경준
(한의사)



옥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에 가수 '요요미' 선정

관광시설 입장료·숙박료·체험료 등 할인 혜택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를 옥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 선정했다.

군은 9월 28일 한국관광공사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가수 '요요미'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1호를 발급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며, 이를 발급받아 군을 방문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시설의 입장료, 숙박료, 체험료 등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모바일 앱 전용 페이지(디지털 QR코드 활용)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월 말까지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을 위해 군 직영시설 조례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침체된 관광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많은 이벤트 및 행사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옥천군 관광주민증 1호를 발급 받은 가수 요요미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1호 발급의 영예를 누리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이 활성화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옥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옥천군과 평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를 옥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 선정했다.

창군이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갈고뒸은 실력 뽐내요”... 2022 평생학습축제 개최

옥천군은 오는 15일 옥천체육센터에서 '2022 옥천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연스러운 학습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으며, 옥천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축제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수강생 등 총 23개 팀이 전시, 체험, 공연 세 분야로 나뉘어 오후 1시부

터 오후 7시까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풍부한 행사들로 채워진다.

먼저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전시 및 체험행사는 평생학습원 수강생 및 동아리에서 13개 팀이 참여한다. 전시관에서는 손뜨개 인형, 캘리그래피, 도자공예, 풍경사진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80여 점을 전시하며, 체험형 부스에서는 보드게임, 쉬링클스공예, 캘리그래피 감사카드봉투만들기, 생활시주, 바른자세몸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공연행사는 평생학습 동아리인 소리시낭송회, 슈퍼스타밴드, 가요장구교실 등 10개 팀에서 참여하며, 악기연주, 노래, 무용, 댄스 등의 공연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뒸은 실력을 뽐낸다.

축제 관계자는 “세대와 계층을 불문 전 군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학습동아리가 단순 교육을 뛰어넘어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존감 향상으로 군민 위상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수시네마 10월 상영 영화



컴백홈

장르: 드라마, 코미디
개봉일: 10월 5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서울 상경을 결심한 기세(송새벽) 그러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폐지 소식과 함께 꿈도, 돈도, 집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15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고향에서 만난 총청도 최대 조직의 삼촌 '강돈'(이범수)은 현금 20억과 함께 기세에게 솔직한 제안을 하고 기세는 다시 행복한 인생 역전을 꿈꾼다. 한편, 오랜 기억 속 첫사랑 '영심'(라미란)까지 만나게 되면서 기세는 매일매일 예측불허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20억과 함께 찾아온 조폭 상속의 기회! 거기에 첫사랑까지? 꼬일 대로 꼬인 인생... 버려져버린 기세의 역전이 시작된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장르: 액션, 코미디
개봉일: 10월 12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미국에 이민 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은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뼈대하게 구는 딸로 인해 대혼란에 빠진다. 그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 수만 개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능력을 빌려와 위기의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블랙 아담

장르: 액션, 모험, SF
개봉일: 10월 19일
등급: 미정

5000년 전 고대 도시 '칸다크'의 노예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사신으로 깨어난 '블랙 아담'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격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리멤버

장르: 드라마
개봉일: 10월 26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뇌종양 말기, 80대 말초이며 환자인 한필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필주는 60여 년을 계획해 온 복수를 감행하려고 한다. 그는 일반 중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절친이 된 20대 알바생 인규에게 일주일만 운전도 도와 달라 부탁한다. “원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같이 접시 닦던 사람 맞아요?” 이유도 모른 채 필주를 따라 나선 인규는 첫 복수 현장의 CCTV에 노출되어 유력 용의자로 사라져가는 기억과 싸우며 필주는 복수를 이어가는데... 60년의 계획,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다!



옥천군민 도서관

10월 추천도서



도서명: 사람들은 왜 성격테스트를 할까?
저자: 훌렌 니콜라스
출판사: 북드림

그 사람의 성격이 궁금할 때 예전에는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다면, 요즘 유행은 MBTI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심지어 면접이나 서류전형과 같이 중요하고 공식적인 이벤트에서도 성격테스트가 활용되는 추세이다. 내성적 성향인 INTJ는 지원도 하지 말라니! 대체 성격테스트가 뭐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저자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결과지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별난 것이 아니라 정상 범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안정을 찾았다고 말한다. 지금 그대로의 나를 확인해 주고 스스로 받아들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조금은 특별하지만 '정상'인 나를 만나게 해 주는 심리 테스트는 MBTI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 저자가 엄선한 25가지 테스트를 담고 있으며, 테스트를 활용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도서명: 식물의 은밀한 감정
저자: 디디에 반 코빌라르트
출판사: 연금술사

우리가 몰랐던 식물의 놀라운 지능과 감각, 상상력, 생존 본능, 인식 능력에 대하여 세계 최고의 식물학자, 인류학자들과 나는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식물들은 모습을 바꿔가며 공격과 방어를 하고, 동맹을 만들고, 사냥하며, 그들의 공포와 고통, 기쁨과 감격을 전달한다. 또한, 인간을 인식하고,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식물은 인간이 없어도 잘 살지만 인간은 식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빛지고 있는 이 동반자를 종종 잊고 무시한다. 하지만 소설가 디디에 반 코빌라르트가 식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담아 쓴 이 책을 읽고 나면 식물이 우리의 존엄한 동반자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 해당 도서의 이미지는 인터넷 알려진 서점의 이미지를 참조했습니다.



함께해요!

경제과 일자리센터 ☎730-3396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731-9542 / 9532

※ 옥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행복드림옥천-일자리소식-일자리센터(https://chungbuk.work.go.kr/okcheon/main.do?)로 접속하시면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채용분야 (직종)	모집학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근무형태	문의
(주)체리부로	배합사료 기계조작원	학력무관	옥천읍 삼청2길	시급 9,160원 이상	주 5일	043-730-5702
다드림전선드림	제조단순종사원	학력무관	옥천읍 지용로	월 250만원 이상	주 6일	042-634-5212
주식회사정도하이텍	석유화학 리포밍, 크래킹, 모노자이렌 경력자 기술고문	고졸~석사	옥천읍 서대구일로	월 300만원 이상	주 5일	043-733-6560
비전목재	생산원 및 운전원	학력무관	옥천읍 지용로	월 250만원 이상	주 6일	042-634-5212
가온재가복지센터	방문간호 간호사 & 간호조무	학력무관	옥천읍 성신로	월 1,914,440~300만원	주 5일	043-731-1479
락희푸드	생산직	학력무관	옥천읍 가풍2길	월 200~220만원	주 5일	043-733-9383
(주)대송	공구관리자	고졸	옥천읍 서부로	월 200~300만원	주 5일	043-731-8127
(주)진영포장산업	상하차 및 창고 관리원	학력무관	동이면 옥천로	월 250만원 이상	주 5일	043-732-4882
	기술직(성형/압출)	학력무관	동이면 옥천로	월 250만원 이상	주 5일	043-732-4882
(주)대송	포장/납품 기사	학력무관	옥천읍 서부로	월 200~300만원	주 5일	043-731-8127
(주)대호	레이저 오퍼레이터	학력무관	동이면 금강로	월 230만원	주 5일	043-731-0008
제이앤에스 코퍼레이션	기계 설계원(캐드원)	학력무관	옥천읍 서부로	연 2400~4000만원	주 5일	043-731-8654
	용접원	학력무관	옥천읍 서부로	연 2400~3000만원	주 5일	043-731-8654
거창정밀	용접사상원 및 보조원	학력무관	옥천읍 옥천동이로	월 195만원 이상	주 5일	043-731-1317
(주)제일주류합동	배송납품원	학력무관	옥천읍 향수1길	월 280만원 이상	주 5일	043-731-4859
(주)폴리피아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고졸~대졸(4년)	동이면 적하3길	월 360만원 이상	주 5일	043-733-1477
농원의모든것	온라인 판매원	학력무관	이원면 목목로	시급 9,160원 이상	주 5일	043-733-8511
대도식품	탕류,면류 생산직	학력무관	옥천읍 양수로6길	월 1,914,440원	주 5일	043-731-6797
(주)동원레미콘	대형 덤프트럭 운전기사	학력무관	군북면 옥천로	연 3800~4500만원	주 6일	043-732-5390
친환경산업(주)	생산직(고무압출성형검사, 포장, 조립)	학력무관	청산면 남부로	시급 9,160원	주 5일	043-730-2200
주식회사세진건설	토목공사 현장소장	학력무관	옥천읍 삼양로5길	월 400만원 이상	주 6일	043-733-8205
주식회사 본데어리	품질관리원(HACCP)	학력무관	옥천읍 의료단지길	연 2400~3000만원	주 5일	070-4420-8071
주식회사 겨	생산직(배합, 성형, 포장)	학력무관	군북면 증약길	시급 9,160원 이상	주 5일	043-731-6647
향스토리	매장 관리 및 바리스타	학력무관	군서면 성왕로	시급 9,160원~10,000원	주 6일	010-5858-5280
중앙노인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	학력무관	옥천읍 중앙로	시급 9,160원 이상	주 5일	043-733-3137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법인	운전직(퇴비운송 및 배송)	학력무관	옥천읍 서대구일로	연 3000만원 이상	주 5일	043-731-8118
청산원	생활지도원	학력무관	옥천읍 삼청3길	월 1,924,000~2,036,000원	주 5일	043-733-3456
동일산업	자동차부품조립원(머리받침대 조립)	학력무관	옥천읍 옥천농공길	월 192만원 이상	주 5일	043-731-7208
(주)라스켄	생산직(안경렌즈 가공, 코팅)	학력무관	동이면 동이농공길	월 200만원	주 5일	043-731-4472

이달의 영농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 벼의 수확적기는 외관상 충분히 익고 수분함량이 25%이하 일 때이고 출수 후 중생중 50~55일, 중만생중 55~60일 건조 및 저장 일반용은 45°C에서 종자용은 40°C 이하에서 건조하며 저온저장은 수분함량 15%, 저장온도 10~15°C, 상대습도 70~80% 정도 유지 땅심높이기 볏짚 3~4등분 절단 400~600kg/10a 사용, 깊이같이 실시
밭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콩 콩 꼬투리에 푸른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때 수확하고 콤바인 수확적기는 수분함량 18~20% 정도에 실시 고구마 10월 상·중순까지 수확, 아물이(큐어링) 처리 가을감자 예비저장은 온도를 12~15°C, 습도 80~85%에서 1주일 정도 실시, 본 저장은 3~4°C, 습도 80~85%에 보관 보리·밀 보리·밀은 월동 전에 본 잎 5~6매 확보, 파종 전 종자 소독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배추·무 아주심기 후 15~20일 간격 웃거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파종 후 40~50일경인 결구초기 마늘 씨마늘 소독, 10월 중하순부터 한지형 마늘 파종 시작 시설채소 보온준비, 10월~11월 상순 외부 매개충 유입우려, 집중관리 딸기 보온개시기까지 엽수를 4매정도 유지하여 2화방 분화촉진, 아주심기 후 1개월 후 보온 실시, 야간온도 12~15°C 관리, 수경재배 EC 0.6~0.8 저농도 급여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 칼라차트 이용 적기수확, 맞춤형 거름 시비로 이듬해 초기발육 향상(조·중생중은 9월 하순, 만생중은 10월 중순에 시비) 사과 만생중 “후지” 즉시판매용(10월하순), 저장용(10월중순) 등 용도별 분산 수확 (장기저장용 사과는 일반 수확기보다 5~10일정도 빨리 수확)
특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 개갑이 완료단계이므로 수분이 정체되지 않도록 물주는 속도를 조절하고, 개갑이 완료되면 파종 2~3일전 용기에 꺼내 뿌림. 10월 중순~11월 중순사이 표준이랑 규격, 방향에 맞춰 파종 및 묘심을 정식함 더덕 더덕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30~50g이상은 수확하고 작은 뿌리는 다시 심어 1년간 재배한 후 수확 등굴레 종근 파종 시기는 10월 상순~11월 상순이 적당함 느타리버섯 품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을 유지 시켜주며, 겨울 재배 농가는 종균, 배지를 사전 확보 등 재배 준비를 해야 함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단방역 철저히 준수 가축관리 환절기 축종별 적정 환경유지 및 사양관리 사료작물 적기 파종 지역특성(토양 및 기후)에 맞는 종자 파종 시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및 소독 철저 양봉 가을철 기본관리(월동별 양성, 합봉, 빈벌집 보관), 병해충관리(말벌 방제 등)

•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가 신청 접수

- 추가신청기간: 사업 적격자 선정시까지 /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접수 (※ 주소: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상담문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 소득작목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신청자격	문의
			계	보조	자부담			
농촌 체험	도농 상생 팜핑 (Farmping) 모델 조성 시범사업	1	35,000	35,000	-	체험농장과 캠핑 특성을 살린 팜핑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지원 및 농장시설 보완으로 체험공간 조성 ※ 사업비 내(7,000천원) 컨설팅 수행 필수 ※ 사업추진으로 야영장 허가 필히 득하여야 함	농촌체험활동과 캠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생활지원팀 (730-4933)
원예	아열대루트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1	50,000	50,000	-	아열대 작물 기반 조성 (종묘, 유인 및 차광시설 관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아열대채소·과수 재배희망 농업인 - 하우스 개보수 0.15ha - 간이시설 0.5ha - 노지 1.5ha 이내	소득작목팀 (730-4954)



미래세대 꿈나무 후원

옥천읍

옥천읍 소재 정근식 치과의원 원장은 9월 5일 옥천군청을 찾아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맡겼다. 정근식 원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지역아동센터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 여름내 애를 태우는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도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 시설에 냉장고 2대, 식판 살균건조기 1대 등 집기를 새로 장만했고, 드림스타트 4가정은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진행했다.



공익직불제 마을 순회 교육

군북면

군북면 행정복지센터는 교육 미이수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인 농업인들이 많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고, 복지센터에 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증악리 등 9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5일부터 6일까지는 마을 순회교육에도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과 신규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에서 교육을 시행했다. 한편, 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군서초 총동문회, 따뜻한 모교 사랑

군서면

군서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종섭)는 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총동문·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모금한 ‘운동장 100바퀴 달리기’ 후원금 370만원을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수, 김종범)에 기부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군서초등학교 동문과 면민의 화합을 보여준 이번 행사에서 동문들은 운동장 100바퀴를 돌며 1바퀴당 500원의 후원금 모으기로 행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370만원이 모였다. 김종섭 회장은 “군서면민들과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문·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무척 뿌듯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쓰이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웃사랑 실천 ‘한마음 한뜻’

안내면

박덕흠국회의원사무실과 한전옥천지사(지사장 정관영, 위원장 천성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7일 옥천군 안내면 나실인치매재활전문요양원(이요셉 원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필품(쌀, 과일, 라면, 휴지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 케어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 정관영 지사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박덕흠국회의원사무실과 한전옥천지사 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향후에도 지역사회 가치실현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충시설 조성 제막식

이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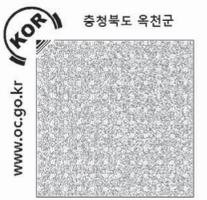
이원면 건진리에서 9월 14일 현충시설 조성에 따른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황규철 군수, 박한범 군의장, 손애진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이원면 현충시설 건립추진단, 7개 보훈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8년 12월 이원면 개심리 사유지에 설치된 기존의 현충탑이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부지 이전과 충혼탑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군은 현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조성된 현충시설은 이원면 건진리 739-30번지, 491㎡의 규모의 부지에 총공사비 3억 6500만원을 투입해 현충탑을 재건립했으며 독립유공자탑을 신규로 설치했다.



이·미용 서비스 인기몰이

청성면

청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까끌래 뽀끌래) 지원 사업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협의체는 올해로 3년째 청성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116명에게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쿠폰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60여 명이 쿠폰을 사용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관내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감경과 개인위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성초 살리기 운동’으로 교육 이주한 가정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이번 사업과 연계해 관내에 정착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우)를 구성해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당초 예산보다 959억원 증액된 6858억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한범 의장은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로 면밀한 결산심사와 안전심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촉구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9월 14일 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충청도와 옥천군이 지역소멸의 위기와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 의료,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와 피해액 대비 불평등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 지역발전 자립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옥천군의회는 9월 28일 열린 제29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옥 의원은 ‘물류수송 차량 이동과 관련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원면·동이면 물류기지를 드나드는 대형화물차로 교통체증·교통사고·차량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옥천군수를 답변자로 질문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동이면 고속도로 무인 나들목 설치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옥천군수를 답변자로 농촌지역 영농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를 주제로 군정 질문을 진행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과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향수호수길 추진사업과 관련 준공 이후 현재까지 완전 개통 지연 사유를 행정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질문했다. 이와 함께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과 대청호 전기도선 운영, 안터지구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연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충북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립 건의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9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공중보건 의사 인력 배치와 충청북도 남부권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지역별 공공 의료 자원의 공급 격차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은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옥천군의 공중보건 의사 배치인력은 2018년 19명에서 2022년 현재 2명이 감소한 상태이며,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 입원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은 도내 11개 시·군 중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유일하게 전무한 실정이다.

박한범 의장은 “공중보건 의사 대부분이 민간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관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자재, 유류비 폭등... 영농지원 대책 마련해야”



옥천군의회 송운섭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군 농민들에게 쌀·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농자재 인상분 지원, 영농지원 면세유 리터당 300원 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 확대 등 폭등한 생산비 원가 절감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옥천군의회에서 결의된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요구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쌀값 안정화 근본적 대책 수립, △TRQ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TP 가입 논의 중지 선언 및 폭등한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신곡 격리물량을 30만t 추가해 쌀값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목표가격(24만원)이 충족될 수 있는 양곡관리법 마련과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CPTTP의 가입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일정

10월 정례간담회
- 10. 4.(화) 10:00 / 의원 간담회실

제30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 10. 11.(화) ~ 10. 13.(목) / 3일 /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본 일정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뢰받고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길 바라며”

시간이 참 빠르다. 경찰에 입문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경찰서 정문을 들어서면 “선배님,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선배님, 안녕하세요”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한다.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옥천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중앙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첫 시작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힘찬 포부를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찰관으로서 첫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이유는 올해도 어김없이 2022년 10월 21일 바로 ‘제77주년 경찰의 날’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 운영권을 이양받은 날을 기념해 1973년부터 ‘국립경찰 창립일’로 정해 해마다 다양한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기강확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로 제정했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찰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치안 그리고 사회질서를 확보해야 하며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경찰의 모습이어야 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날로 포악해지고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범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찰의 위상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경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찰의 발전과 건승을 빌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길 바란다. 또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선진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옥천경찰서 경사 노은화



가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 안전수칙’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농기계 사고 관련 통계

- ✓ 최근 3년간(19년~21년) 2418건 농기계로 사고 인명피해 발생(사망 102건, 부상 332건)
- ✓ 원인별 농기계 끼임·갈리는 사고 86.3%,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13.7%

- 1 **작업 중 반드시 안전용품 착용**
- 2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 3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꼭 등화장치를 작동**
- 4 **농기계에는 꼭 한사람만 탑승하세요**
- 5 **작업 후에는 항상 기계점검**



소화기,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안내

- ✓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등지고 사용
- ✓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사용



옥내소화전 사용법

- ✓ 소화전 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을 알린다
- ✓ 2인 1조로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 함의 문짝 손잡이를 당겨 개방 후



- ✓ 만약, 화세가 너무 강하다면 무리해서 끄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하세요



- ✓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 ✓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 ✓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내년부터 모든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한다

지역인재 유입 ·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등 기대

내년부터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2023년에 재학하는 학생 모두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이번 충북도립대학교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은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교를 통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충북도립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충북도와 충북도립대에서 장학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립대 학생들이 옥천군 주소 이전에 따른 축하금(120만원 상당) 지급도 확정된 것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과 성취장학금 등의 혜택 등이

확대돼 충북도립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공병영 총장은 "이번 전액 장학금 지급 결정은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조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인재 유입 효과가 기대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명품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충북도립대학교 편제정원은 870명이다.



충북도립대학교 전경.

대림묘목농원 JB가든센터, 1억원 상당 상감 청자 기탁

충북도립대학교는 9월 19일 본관 1층에서 명품 인재 양성 릴레이 기부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림묘목농원(주) 대표이면서 충북도립대학교 가드닝 최고경영자과정 명예 주임교수인 김정범 대표는 1억원 상당의 상감 청자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상감 청자는 충북도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기 수료생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의 청자 명인 윤도현(80세) 도예가의 작품이다.

기탁식에는 공병영 총장을 비롯해 김정범 대표와 윤도현 도예가, 교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정범 대표는 "충북도립대학교가 충북의 명문대학교로 위상을 떨치길 바란다"며 학교 측에 기증의사를 밝혔다.

공병영 총장은 "이번에 기탁받은 상감 청자는 굉장히 뜻깊은 것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이번 기탁식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민들이 가진 학교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북도립대학교가 충북의 명문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림묘목농원(주) 대표이면서 충북도립대학교 가드닝 최고경영자과정 명예 주임교수인 김정범 대표는 충북도립대학교에 1억원 상당의 상감 청자를 기탁했다.

2022년 충북도립대 도리지

제 24대 총학생회 도리 x 총동아리 연합회

2022년 10월 21일 13:00 ~ 22:30 아외공연장

출연진: 최예나 / 멜로망스 / 백예슬 / DJ ???

노래자랑

1등 상금 30만원 + 에어팟맥스

2등 상금 20만원

3등 상금 10만원

경품추첨

제24대 총학생회 도리 x 총동아리 연합회



친정엄마와 꽃구경 왔어요



김경란(옥천읍)

다들 멀리 살아서 만나기 힘든데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자매들이 꽃구경 왔어요.
무뚝뚝한 우리 엄마~ 사진 찍을 때는 “스마일”.
자매들이 만나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요.



‘옥천의 미래’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강정희(옥천읍)

오랜만에 문화센터에 와서 촉감 활동하
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내년에는 동생도
태어나는데 동생하고도 사이좋게 잘 놀
았으면 좋겠네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독자퀴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황규철 옥천군수의 특별한 주민 소통 창구 ‘□□□□□’가 한 달 만에 185건의 민원을 접수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퀴즈 정답은 옥천소식 10월호를 자세히 읽어보시
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과 요령은 옆의
‘참여를 기다립니다’와 같습니다.

※ 독자퀴즈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농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을 위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축하합니다

<9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강점숙(이원면), 김남영(옥천읍)
김은희(청산면), 김지윤(대전시)
손유섬(옥천읍), 송미연(이원면)
안선호(옥천읍), 이호선(청산면)
장미영(진천군), 황은미(옥천읍)

정답

고 향 사 랑 기 부 금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활 주변 이야기나 시, 사진, 그림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 소정의 선물(농협상품권)을 드립니
다.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A4 용지 1매 내외(12pt)
분량 원고를 10월 26일(수)까지 우편(충북 옥천군 옥
천읍 중앙로99 기획감사실) 또는 이메일(kdh78119@
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옥천소식은 무료로 배부하는 군정소식지입니다. 구
독을 원하시는 분은 우편이나 전화 또는 옥천군청 홈
페이지 (www.oc.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
역 근무자 등 출향인에게도 가족들이 대신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을 선물하세요.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팀
☎ 043-730-3065



소중한 아기사생 소식 전해요

사랑스러운 아기의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옥천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kdh78119@korea.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과 함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옥천소식지 3부를 보내드립니다.
친가와 외가에도 옥천소식지를 선물해보세요.

- 대 상 : 옥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겐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 의 :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731-3065)

“옥천에도 골때리는 그녀들이 있습니다”

옥천 최초 여성 풋살팀 ‘O.K스마일’을 만나다

초가을 하늘이 어둡으로 물드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옥천군 청소년수련원 풋살장(옥천풋살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북적인다. 고된 일상에 심표를 찍고 주말이 시작되는 설레는 시간, 피곤한 몸을 편히 누이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 볼 법도 한데 이곳에 모인 이들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반짝인다. 설레는 표정으로 풋살화를 고쳐 신고, 지난 연습을 되돌아보며 몸을 푸는 이들은 옥천군 최초 여성 풋살팀 ‘O.K스마일’(회장 전인선, 감독 조은오)이다.

“여자들이 운동을 싫어한다는 건 편견이죠. 해볼 기회가 생기면 누구보다 눈을 반짝여요. 창단 당시 16명이던 회원 수가 25명으로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죠. 기회나 계기가 없었으니 도전할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O.K스마일’ 전인선 회장은 창단 당시를 회상하며 여성들의 풋살에 대한 뜨거운 참여 열기에 대해 말했다.

전 회장은 화제의 TV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풋살의 매력을 알게 됐다. 아들들의 취미로만 여겨왔던 풋살은 공이 골망을 흔들 듯 빠르게 그의 마음에 꽂혔다. 그러자 우리 지역 여성들도 즐겁고 체계적으로 풋살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회장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했고 잘하고 싶은 열망이 늘 마음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여성팀을 창단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께할 사람들을 찾다 보니 한 명 한 명 회원이 모였고, 체계적으로 배워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보자는 회원들의 뜻이 합쳐져 감독님도 섭외했습니다”고 창단 과정에 대해 밝혔다.

옥천군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O.K스마일’이 창단한 건 올해 5월 20일, 옥천청소년수련관 풋살장에서 창단식이 진행됐다. 이후 조은오 감독이 ‘O.K스마일’ 감독으로 부임하며 지금까지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풋살지도자 자격증과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선수로 그라운드를 달리기 도하는 그는 회원 대부분이 풋살을 처음 접하는 만큼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기초 체력을 높이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습을 진행한다.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5명의 선수가 팀이 돼 경기를 운영하는 만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게 마련. 조은오 감독의 지도와 회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팀워크를 다져온 결과, 회원들은 ‘O.K스마일’의 비장의 무기를 ‘단합’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다.

“저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강하고 욕심도 많아요. 연령도 제각각이고요. 하지만 풋살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었죠. 훈련을 시작하기 전후에 늘 다짐해요.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자. 팀 이름처럼 웃으며 화목하게 풋살하자.”(전인선 회장)

“저희가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던 모든 역량이 다 조은오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독님을 만나기 전까진 풋살은 커녕 축구의 축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한명 한명 포기하지 않고 훌륭하게 지도해주셨고, 개인 시간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저희의 실력을 키워주셨어요. 늘 성실하게 가르쳐주시니 감독님의 존재 자체가 자극이 돼요.”(박진옥 부회장)

조은오 감독의 가르침 아래 꾸준히 훈련을 거듭한 결과 ‘O.K스마일’은 올해 7월에 열린 제6회 옥천군연맹회장기 풋살대회(옥천군체육회 주최, 옥천군풋살협회 주관)에서 값진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 최초로 신설된 여성부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 하지만 이들의 준우승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 기뻐요. 긴장했지만 다치지 말고 즐기자고 다짐한 만큼 즐기면서 뛰었고, 그 결과 첫 출전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이혜진 사무국장)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이 기뻐요. 한편으론 저희가 창단할 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이 떠올랐지요. 자연스럽게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지는 의견이 있었어요. 처음 창단하면서 우리만 즐겁게 운동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작게나마



보탬이 되자는 다짐을 했었거든요.”(전인선 회장)

그렇게 8월 26일, 준우승 상금 15만원에 ‘O.K스마일’ 회원들의 자체 후원금 15만원을 더해 옥천군 장학회에 30만원을 기탁할 수 있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간 받았던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뻐요. 창단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주목을 받은 만큼 앞으로 차차 지역사회에 그 마음을 갚아나갈 계획입니다.”(전인선 회장)

‘O.K스마일’ 전인선 회장과 회원들은 더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풋살을 즐기기 위해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연습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풋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곧 겨울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부상 위험이 크죠. 연습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성 풋살뿐 아니라 풋살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내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인선 회장)

초가을 바람이 점점 선선해지는 요즘, ‘O.K스마일’은 ‘2022 옥천군 클럽 및 직장 풋살대회(2차)’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대회든 다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기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면 더 좋고요!”(전인선 회장)

한편, ‘OK스마일’의 정기 연습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옥천군청소년수련관 풋살장에서 이어진다.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 선정된 안내초등학교

안내면 소재지에 있는 안내초등학교.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이들의 교실은 날이 갈수록 학교 울타리를 넘어 멀리까지 뻗어간다.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폐교를 걱정하던 안내초는 마을과 학교가 한 몸이 되기를 택했다. 그 방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충청북도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친지 6년째, 안내면에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발전하는 안내초 소식을 듣고 매년 꾸준히 전학생이 찾아오는가 하면,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로 알아가기’에서 시작된 마을과 학교의 상생

“2017년이었을까요, 옥천신문에 ‘옥천군 8개 면 중에서 안내면이 가장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죠. 안내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안내면 이장으로서, 또 이곳에서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학교를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였다 결론 내렸죠.”

안내면 주민이자 안내초 학부모, 답양리 이장인 이요셉 씨는 당사를 회상하며,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의 중요성을 안내면 이장협의회에 설명,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안내초등학교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마을과 학교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고, 주민들은 이들에게 ‘여행해설사’가 됐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마을의 유래·전설과 같은 옛이야기와 특산물·문화재 등을 설명했고 이는 이후 마을 교과서 ‘안내 한 바퀴’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 직접 만든 마을 교과서는 지금껏 수업 시간에 지역화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과 학교의 변화는 길모습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처음 진행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온 동네가 학교다’로 학교 건물과 담장은 물론, 마을 담장에 알록달록 벽화가 그려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마을 주민들은 다함께 안내면 마을의 옛이야기를 벽화에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까지 안내면 카페 토닥이중효 대표의 도움이 밑바탕이 됐다.

“2017년도에 고향에 귀촌해 이곳에 카페를 열었죠. 저의 모교이기도 한 안내초등학교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미술을 전공했고, 마을 이야기를 벽화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학생들과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을 벽화를 그렸고,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졌다. 이 대표 역시 안내초등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마을 벽화는 다채로워졌고, 마을 이야기도 차곡차곡 벽화에 기록됐다. 초창기에 함께 그렸던 학생들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될 정도로 시간도 쌓였다.

“마을에서 무언가 다 같이 하면서 추억을 남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안내초 학생들이 졸업하더라도, 이곳에 함께 그린 벽화는 오래도록 남아있을 테니까요. 마을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진 것도 기쁘죠.”

이와 함께 마을 여행을 통해 발견한 ‘능검이 이야기’는 벽화 외에, ‘연극 놀이 프로젝트’로 이어져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했다. 총 20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돼, 시나리오 작성·개사·안무·무대 기획 등 전교생이 함께 만든 춤과 연기가 포함된 무대였다.

학생들 마음에 싹트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

안내초등학교는 꾸준히 학생들이 마을을 잘 알아가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안내면 어디까지 가봤니’를 주제로 안내면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직접 재배·수확해 요리까지 해보는 활동을 진행했고, 옥수수와 감자의 전분을 활용해 친환경 주방세제를 제작, 마을 이모티콘 제작, 옥수수·감자 축제에 참여해 홍보 물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2학기에는 ‘정지용과 함께 시를 꿈꾸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정지용 시인 생가 방문, 지용제 참가, 시 창작 교육 등을 진행하고, 마을에 관한 시를 학생들이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 교과서를 활용해 이곳과 관련된 역사를 익히고 배우는 것 역시 빠지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3~6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안내 다





모임' 활동은 학생자치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중심이 돼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나누는 자리다. 이들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며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흔들의자도, 놀이터 그늘막도, 복도의 정수기도 이들의 건의를 통해 설치됐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를 활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에 모교와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아이들 방과후를 책임지는 '꿈지락꿈다락방'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학교 건물 바로 옆, '꿈지락꿈다락방'이다. 2018년 충청북도교육청 마을돌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기존 안내면 복지회관 건물을 활용해 만든 공간이다.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놀고 또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있었어요. 안내초등학교 어린이 대부분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 꿈지락꿈다락방을 열고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아주게 된 거예요.” (안내마을돌봄 꿈지락꿈다락방 이요셉 운영위원장)

안내마을돌봄 꿈지락꿈다락방 이요셉 운영위원장은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며 마을과 학교에 대한 강한 애착감을 나타냈다.

꿈지락꿈다락방을 운영한 지 5년째, 이곳에는 현재 3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다. 안내초 전교생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내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곳을 졸업한 중학생도 일부 찾아온다고, 어린이들에게 이곳은 놀이터이자, 휴식 공간, 공부방 역할도 한다. 이들은 영어·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부터 드럼, 공예, 드론 등 다양한 것들을 이곳에서 배운다. 마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 돌봄교실이 끝나고 나면 집 앞까지 태워다주니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오가는 길도 걱정 없다.

“이제는 명절에 자녀들이 마을에 오면, 어르신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면,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학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높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와서 잠시 이곳에 머물던 어린이가 안내초등학교로 아주 전학을 온 일도 있었죠. 이곳에서 지내니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행복해지니 마을에도 활기가 돈다. 안내면은 앞으로도 이들에게 투지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어린이가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다. 인근 대동폐교를 군에서 매입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발돋움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오래도록 튼튼하기를 '한마음 한뜻'

“우리 학교는 작지만,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예요. 도시 학교보다 좋은 점이 무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워요. 친구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우리 학교가 오래도록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안내초6, 백승하 학생)

“우리 마을 참 좋은 마을이거든요. 제 아이가 자라고 컸을 때까지도 마을이 든든히 남아있었으면 하죠.”(이종효 카페 토닥 대표)

“어린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더라도, 이곳에 자꾸 돌아오고 싶을 테고 안내면도 오래 서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답양리 이요셉 이장)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학교와 마을이 오래도록 튼튼하기를 바란다. 이들의 마음이 결국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테다.



행복드림 옥천

내 고향 옥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아진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옥천을 살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기부혜택

혜택1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3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

문의처 옥천군청 자치행정과(043-730-3181~2)